

일본 重電機器 산업의 최근 동향

일본의 중전기기업체는 경제의 회복기조에 힘입어 산업용설비 및 민생용기기 등의 호조를 배경으로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전력의 설비투자억제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으로는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95년도(회계년도 기준)의 생산액은 중전기 전체로 전년도대비 0.1% 감소한 4조2,936억엔을 기록하였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발전용 원동기는 증기터빈, 가스터빈의 호조로 증가기조를 보였으나 수력터빈 생산의 부진으로 동부 부문 전체로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교류발전기, 교류전동기, 서보모터 등의 회전전기기계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5%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6년도 정지전기기계기구 생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는데 이를 주요기종별로 보면 변압기의 경우 표준변압기는 전력의 유통관련투자 축소 등으로 7.8% 감소하였으나 비표준변압기의 호조로 변압기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3.8% 증가하였다.

한편, '96년 들어 설비투자, 개인소비 회복 및 재고조정 진전 등으로 일본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의 중전기기업체는 전력의 설비투자 억제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용 프랜트기계의 외조달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전기 생산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0.8% 정도 감소한 4조2,584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전기기기 생산동향〉

(단위 : 억엔, %)

구 분	'94		'95(추정)		'96(예상)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전 기 기 기 합 계	71,192	5.0	72,240	1.5	70,451	-2.5
중 전 기 기	42,975	1.9	42,936	-0.1	41,584	-0.8
가 정 용 전 기 기 기	28,217	10.4	29,304	3.9	27,867	-4.9

주 : 회계년도 기준,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일본전기공업회, 「'96년 전기기기생산전망」

日, 변압기시장 회복세

일본 경제가 작년 하반기이후 전체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임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와 함께 변압기의 생산 및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변압기 생산액은 '93년까지 3천억~3500억엔 수준을 유지해 오다 '94년에는 2500억엔 수준으로 급감했었다.

이는 엔화강세로 전자제품 메이커가 계속해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전자부품중에서도 노동집약적 요소가 강한 변압기의 생산은 동남아의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스위칭전원용 변압기는 일본 국내제품이 중

심을 이루고 있으나 이미 100~200KHz 전 원용이 범용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500KHz이상 수만MHz에 대응하는 칩변압기 등은 향후 제품 전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주파변압기가 전체 시장을 주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변압기 수입은 최근 몇년동안 계속된 엔화강세 영향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는데 '95년에는 약 23.2% 증가한 4억55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제품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기능 제품에 대해 일본업체가 생산기반을 중국으로 이전한 결과이다. 한국 제품의 수입은 '93년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시장을 확보해 가면서 '95년에는 약 5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변압기의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한국 및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출공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관세율

(단위 : %)

HS Code	기본세율	WTO 협정세율	
		'96.12.31까지	'97.1.1부터
8504.21	무 세	2.9	2.0
8504.22	〃	3.5	2.3
8504.23	〃	3.5	2.3
8504.31	〃	2.9	2.0
8504.32	〃	2.9	2.0
8504.33	〃	2.9	2.0
8504.34	〃	3.5	2.3

미얀마, 電線 輸入수요 늘어

미얀마의 전선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얀마 방문의 해’행사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호텔·상가·아파트등 건설분야에 각종 송배전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수요가 많아 공급이 크게 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급증도 전선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95년까지만 해도 자국내 전선 생산공장이 미얀마 산업2부 산하의 국영 중공업공사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수요 증가에다 중공업공사 자체 공급물량 부족으로 일부 민간기업이 중공업 공사의 하청을 받아 전선을 생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선수입관세율은 1%(증가세)이며 아직까지 이 품목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조치는 없다.

대미얀마 전선시장 진출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격조건으로 현지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인근 중국산 및 태국산

제품가격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산 전선은 아직까지 미얀마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시장개척단 방문 등 사례에 비추어 품질에 대해서만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미얀마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유력수입상 발굴을 통한 접촉과 병행해 세일즈출장, 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한 직접 진출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구매 입찰참가도 적극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이 경우 먼저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발굴, 관련기관의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얀마는 전반적으로 외환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수입상들이 수입시 L/C결제와 병행해 일부는 위탁판매방식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英, 電動工具시장 회복세

영국의 전동공구 시장이 '94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엔 300만개를 판매, 3~7%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다. 판매액은 1억4천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90년대 초반 영국 경제의 침체로 수요가 줄었던 전동공구 시장이 비교적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동공구 제조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 시판함으로써 수요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이 새로이 등장한 무

선 전동공구를 급속히 선호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기 드릴부문은 '95년 판매량이 99만개로 전체 시장의 32.4%를 차지했는데 '91년에 비해서는 24.7% 정도 신장해 시장점유율을 5% 정도 증대시켰다.

전동 스크류드라이버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91년의 63만개에서 '95년에는 53만개로 16% 상당 판매량이 줄어들었으나 여

전히 전체 시장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전동 샌더부문은 '91년의 26만개에서 '95년에는 39만개로 50%나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내 전동공구시장에서는 각 연마기 다음으로 역동적인 부문이었다.

전통 톱부문은 '80년대 후반에 급속히 성장했으나 '90년대 들어오면서 감소세로 반전되어 '95년에는 33만개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전동공구 수입은 '94년의 1억6178만달러에서 '95년에는 1억7411만달러로 8% 정도 늘어났다. 수입 신장세가 '96년에는 감소세로 반전되어 1·4분기 현재 전년동기

대비 25% 정도 감소됐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독일·일본·미국·스위스·이탈리아 등이 있으며 이들은 '95년 각각 3984만달러, 2573만달러, 2156만달러, 2203만달러, 1201만달러 상당을 수출해 영국 수입시장의 23%, 15%, 13%, 12%, 7%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관세율표상의 세번 8508에 해당되는 전동공구의 수입관세는 종량세로 품목에 관계없이 3.4%의 동일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17.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日 대형전기업체, 해외조달 확대

엔약세 경향이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형 전기메이커는 해외조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환율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수익체질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EC의 경우 '96년도(회계연도기준) 해외조달목표액을 당초 전년대비 28% 증가한 6천억엔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32% 증가된 6,200억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해외조달 비율도 전년의 24%에서 3% 포인트 증가한 27%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도시바 역시 '96년도 해외조달액은 당초 계획인 3,600억엔을 상회하는 4천억엔

으로 전년도비 1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히타치의 경우도 '95년도에 해외조달액이 4,560억엔으로 전년대비 50% 증가라는 대폭적인 신장을 보인데 이어 '96년도 해외조달액은 4,770억엔에 이를 것으로, 신장률은 둔화됐으나 지속 확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도 19% 증가한 2,700억엔으로 2년연속 두자릿 수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조달의 확대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완성품의 수입증가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렴한 해외부품 조달확대 등이 배경이 됐으나 최근에는 이를 통해 환율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수익체질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 되고 있어 엔

회환을 변동에 크게 관계없이 일본전기메이커의 해외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日, 소형모터 생산 회복세

일본업체는 모터수요량의 70% 이상을 해외생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내생산은 '91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다 경기회복세를 반영해 '95년들어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5년의 전체 모터생산액은 8,038억 8,200만엔으로 '94년의 7,453억 6,400만엔 대비 7.9%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입현황

(단위 : 천개, 백만엔)

국 별	1994		1995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한 국	7,609	2,254	6,983	2,439
중 국	272,741	20,721	356,081	28,024
대 만	57,578	6,600	43,235	5,887
태 국	35,762	9,415	39,931	9,064
말레이시아	41,910	6,209	51,825	7,196
싱가포르	59,395	6,592	58,697	6,056
홍콩	12,519	1,160	13,581	1,863
미국	1,222	3,909	419	1,662
영국	4	69	28	34
독일	175	1,022	170	739
총 계	490,279	59,476	580,831	66,588

자료 : 일본 무역월표

일본의 소형모터 생산액은 '95년의 경우 4,144억 200만엔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수량도 4억 4,816만4천개로 1.3% 증가했다.

일본의 소형모터 수입실적을 보면 '95년에 665억 8,800만엔으로 '94년의 594억 7,600만엔 대비 12.0%가 증가됐는데 이는 엔고에 의한 수입증가로 풀이된다.

일본의 국별 수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95년에 24억 3,900만엔으로 전년의 22억 5,400만엔 대비 8.2%가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95년 전년대비 35.2%나 대폭 증가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엔고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태국 등에 현지투자한 공장에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형모터 수입시 관세는 협정세율이 '96년 12월 31일까지 2.9%, '97년 1월 1일 이후는 2%로 돼 있으나 기본세율이 무세로 오히려 낮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수입시 특별한 규제는 없다.